

CONTENTS

생명의 숲 이야기 2016년 생명의 숲은 이렇게 달려갑니다.

기획 기사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건설 논란으로
휘황찬란한 광릉숲의 봄

멸종위기 식물 이야기 광릉요강꽃



녹우당 300년 해송의 삶
300년 전 곁에 있던 벚은 사라지고
외로이 홀로 버틴 300년의 세월
저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수 없이 다양한 감정의 속삭임
외로운 그 삶을 위로하듯 건넌 사람들의 속삭임이
300년의 세월을 견디게 했을까?

- 전라남도 해남 녹우당(해남윤씨종가)에서 이기세 활동가 -

생명의숲에 생명을 불어넣기



글. 이재현 (생명의숲 운영위원, 평생회원,
NPO스쿨 대표, 경희사이버대학 NGO학과 겸임교수)

❖ **우리 사회에** NGO붐이 불며 민간영역이 양적으로 급성장하게 된지 20년 남짓 되었습니다. 생명의숲도 그 즈음에 국민운동으로 창립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든 시민단체와 같은 NGO의 탄생 배경에는 분명 변화시켜야 할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숲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문제가 없다면 탄생시킬 필요가 없었겠지요.

❖ **그래서 많은 단체들은** 사회 변화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설명하고 그것을 알기 쉬운 문장인 미션과 비전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NGO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과거에 비해 시민사회는 성장했고 그 종류도 많아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는 과거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생명의숲은** 1998년에 국민들의 관심 속에 많은 지지를 받으며 탄생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도 유익한 서비스와 의미있는 사회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조직이 안정되면 원치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관료화입니다. 단체가 탄생될 시점에는 존재이유와 사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종종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잊기 쉽습니다. NGO가 그 존재이유를 잊게 되는 순간 시민의 참여는 그저 단순 참여로 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민의 참여가 과거에 비해 못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생명의숲은 긴 여정을 떠나

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초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생명의숲의 존재이유를 다시 분명히 하는 작업에 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그 성취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성취를 어떻게 설명하여 지지자와 후원자(회원)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션과 비전을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과 사업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과를 분명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숲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본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이 작업을** 혼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생명의숲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생명의숲이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영미권의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이라고도 부릅니다. 거창한 해외의 이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후원자와 지지자들과 함께 생명의숲의 존재이유와 정체성, 그 지향성 등을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작년 한해 사무국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결과물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주시는 생명의숲에 대한 의견과 조언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질 거라 믿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숲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작업은, 단체 하나를 재정비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을 활성화시켜 더 큰 유익함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건설 논란으로

‘휘황찬란’한 광릉숲의 봄

‘휘황찬란(輝煌燦爛)’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첫 번째는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인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 온당치 못하고 못된 꾀가 많아 서야단스럽기만 하고 믿을 수 없다는 뜻도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산림생물이 모여 사는 광릉숲도 새싹이 움트는 싱그러운 광채로 눈부시게 번쩍이는 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3구간(포천~화도) 건설 계획에 따른 광릉숲 일대 관통 논란으로 올해 광릉숲의 봄은 또 몹시도 ‘휘황찬란’ 하다.

■ 올 해로 548년 째 봄을 맞이하는 광릉숲

광릉숲의 역사는 1468년 세조가 자신의 능이 들어설 자리를 능림으로 정한 뒤 능 주변과 진입로에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심고 능원과 산적을 두어 관리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광릉숲은 서울에서 약 38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광릉숲의 생물다양성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50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잘 보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온대북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대활엽수 극상림을 이루고 있는데 서어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서어나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나무부터 오래된 고목에 이르기까지 938분류군에 속하는 수많은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장수하늘소 같은 곤충(3,966분류군)들도 많이 곤충을 먹고 사는 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등 조류(180종)도 다양하다. 이 외에도 버섯,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총 5,800여 분류군에 속하는 생물이 살고 있는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생물다양성의 으뜸인 곳이다. 뿐만 아니라 광릉요강꽃, 광릉골무꽃, 광릉물푸레나무, 광릉제비꽃, 광릉개고사리 등 광릉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보고된 식물 중 ‘광릉’이란 접두어를 가진 식물이 10종에 이르며 이 외에도 노랑얕은부채, 개썩눈바꽃, 털옴나무, 흰진달래, 털사시나무 등도 광릉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 광릉숲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건설 논란

이렇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세계적인 보전 가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광릉숲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3구간(포천~화도) 건설 계획에 따라 관통터널이 설치된다고 한다. 원래 당초 계획은 광릉숲을 우회하는 노선이었으나 노선계획에 포함된 창현·마석 등 아파트밀집 지



역을 피하고 내촌 IC 연결로 인한 노선 연장을 단축시켜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광릉숲 죽엽산을 터널(남양주 진목리~포천 고모리 간 2.89Km)로 관통하는 계획으로 재협의 되었다. 그러나 이 변경된 노선 재협의안에는 광릉숲 관통노선의 생태자연도 1등급 현황, 도로건설로 인한 소음과 조명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릉숲 보전협의회와 국립수목원은 지난 해 12월, 고속도로의 광릉숲 관통계획에 따른 광릉숲 생태계 피해를 우려하여 당초 광릉숲 우회 노선에 대한 재검토 건의문과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포천시의 경우, 고모리 일대에 추진 중인 창작·패션·문화·융·복합 인프라 K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변경된 노선이 고모리 일대를 터널로 관통함에 따라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광릉숲 관통 논란과 관련하여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진행 중

이며 관계기관 협의,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여 광릉숲 보전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K빌리지 사업과도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참고·해명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로 광릉숲 보전에 피해가 없도록 도로건설이 추진된다면 다행이겠으나 계획대로 광릉숲 죽엽산 일대로 터널이 뚫리게 된다면 지난 548년 동안 자연그대로 보전되어 온 광릉숲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중대 사안임이 분명하다.

아름다운 광릉숲을 지키는 숲보전운동 전개

숲보전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숲에서도 광릉숲 터널 관통과 관련하여 광릉숲보전 활동 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보전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미 광릉숲 터널 관통과 관련한 주요 자료조사, 관계자 인터뷰, 현장 답사 등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단계로 광릉숲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2단계로 본 사안을 광릉숲포럼의 공식의제로 상정하여 광릉숲 터널 관통에 대한 중재활동 전개, 3단계로는 본 사안이 전개되는 추이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와 토론회 등 활동의 강도와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광릉숲은 올 봄, 548번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지런히 광릉요강꽃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고 크낙새는 숲에 새 봄이 왔음을 알리며 우렁차게 울고 있다. 이런 광릉숲의 모습은 우리가 해마다 기다려온 것이며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기다려지는 모습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3구간 건설은 2017년 말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릉숲이 550번째 봄을 맞이하는 해에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광릉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광릉숲 보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또 간절히 바래본다. 🌞

글: 정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2016년 생명의숲은 이렇게 달려갑니다.

지난해 생명의숲은 전략기획의 과정을 통해 단체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비하고 향후 5년의 핵심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생명의숲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는지

자세한 전략기획의 결과는 다음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글. 사무처장 유영민



2016년에도 생명의숲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한 숲,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숲보전정책운동, 학교숲, 도시숲, 숲가꾸기, 숲문화교육, 사회복지숲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테지만, 그 중에서도 2016년 해결해 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전략홍보와 잠재회원군 관리를 통한 회원확대

시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생명의숲 활동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생명의숲 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생명의숲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나는 시민을 잠재회원으로 발굴하고 회원화하여 이를 통해 시민단체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겠습니다.

02 도시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숲 운동 전략수립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도시숲을 조성하여 양적인 확대를 해냈지만, '도시숲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았습니다. 이에 생명의숲은 '지역 기반의 도시숲 조성관리'를 대안으로 내세워 현장활동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명의숲 도시숲 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역기반의 도시숲 조성관리 모델을 연구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국 확산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03 사회 환경 교육으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숲교육 운동 전략수립

시민사회의 사회 환경 교육은 생태매그 극복을 통한 생태적 감수성과 시민의식 함양, 참여와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

습니다. 숲환경교육 분야는 많은 숲해설가를 양성하고 시민 대상 숲해설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숲을 누리는 휴양과 치유 중심의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숲교육은 숲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적 감수성 함양 그 이상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환경을 위한 실천력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의숲은 숲환경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04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산림 협력사업 기반 마련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 산림협력 사업은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인 민·관 협력모델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생명의숲은 새로운 모델과 전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생명의숲은 대북지원 양묘장 건설과 모목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국제 산림협력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향후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국제 산림협력 사업의 비전과 전략수립, 인적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05 생명의숲 운동 성과정리와 미래 운동방향을 찾기 위한 창립 20주년 준비

생명의숲은 1998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창립한 이래, 숲가꾸기 운동을 시작으로 학교숲, 숲교육, 마을숲, 숲길, 도시숲,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생명의숲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생명의숲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로 임원·전문가·활동가·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기존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비전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멸종위기 식물이야기 - 광릉요강꽃

야생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해마다 5월이면 국립수목원을 찾아 광릉요강꽃과 해후한다. 뛰어난 자태와 고귀함에 숨죽여 바라보는 이, 연신 카메라에 그 희귀한 모습을 담기 바쁜 이, 멸종위기로 울타리에 감금된 존재라 안쓰러워 차마 바로 보지 못하는 이도 있다.

난초와 식물로 다른 이름은 큰복주머니란이며 잎이 좌우에 부채를 펼친 것처럼 독특하고 화려한 모습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야생란이다. 경기도 광릉에서 1931년 처음 발견되었고, 뿌리에서 지란내가 나고 요강모양의 꽃을 피우는 데서 광릉요강꽃이라 이름 붙여졌다.

광릉숲뿐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도 발견되는 등 서식지는 다양하지만 개체수가 적어 자생하는 것을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숲속의 인어'라는 고운 꽃말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너울거림으로 붙여진 것일 텐데, 어쩌면 숲에서 보기 힘들어질 운명을 예견한 듯 해 안타까움이 담긴다. 희귀성과 뛰어난 관상미 등으로 이기적인 포획꾼들의 표적이 되며, 자생지에서 강제로 옮겨지면 길어야 2~3년 안에 거의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생관계에 있는 자생지 토양 내 곰

팡이균이 파괴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목원의 지속적인 보호활동과 자생지 관리로 광릉숲 내 광릉요강꽃의 개체수가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한편, 광릉요강꽃을 비롯한 많은 희귀 동식물이 광릉숲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곳에 숲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숲을 파헤쳐 빠른 길을 내는 것이 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사람들 삶의 환경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살아있는 거대한 숲의 생명을 고스란히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멸종위기종을 더 자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서식환경으로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할 때이다. ☀



© 국립수목원

글. 안민자 회원기자 amj138612@naver.com

3,4월의 자연놀이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한 나만의 꽃화분 만들기

준비물: 1.8L 페트병, 철사, 칼, 아크릴물감, 붓, 송곳, 흙, 꽃씨 또는 꽃모종

1. 페트병 상표비닐을 벗겨내고 가운데 부분을 잘라 2개로 만듭니다.
2. 자른 페트병의 바닥과 목 주변에 송곳으로 물 빠짐 구멍을 냅니다.
3. 아크릴물감을 이용해 자른 페트병에 그림을 그립니다.
4. 그림이 완전히 마르면 나만의 꽃 화분 완성!
5. 준비해둔 흙을 채우고 꽃씨를 뿌리거나 좋아하는 꽃모종을 심습니다.



- 페트병 윗부분으로 만든 화분은 끈을 만들어 걸이용 화분으로 사용합니다. 바깥에 걸어둔다면 삭지 않는 철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꽃도 화분도 알록달록하여 대문이나 발코니에 걸어두면 주변이 화사해집니다.
- 아프리카봉선화, 일일초, 제라늄, 금잔화, 칼랑코에를 심으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 아침마다 물주기, 잊으면 안 되겠지요?
- 나만의 꽃화분 만들기는 청바지, 핸드백 등 다양한 재활용품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류춘희 회원기자 orora13@naver.com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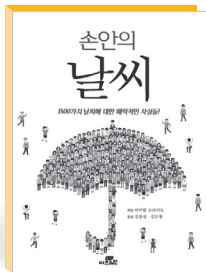
이명덕 회원기자 cokid1@naver.com



○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

김은기 지음 / 지식 프레임 펴냄 / 2013년 4월

찍찍이로 불리는 접착방식은 옷에 달라붙는 씨앗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된 것이다. 방울뱀의 먹이사냥 방식을 이해하여 적외선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상어 비늘의 표면구조를 응용하여 물 속에서 저항이 적은 전신수영복이 나오게 되었다. 바이오미메틱스 (biomimetics, 생체모방 기술, 자연과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을 모방하는 분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비밀을 밝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비밀 30가지를 들여다 보자. 그리고 우리 주변 자연의 놀라움에 다시 눈을 돌려 보자.



○ 손안의 날씨_1500가지 날씨에 대한 매력적인 사실들!

마이클 브라이트 지음 / 김충섭, 김도형 옮김 / Gbrain 펴냄 / 2016년 2월

지구상 모든 것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상 생활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경제가 커지고 세계가 작아지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이 가진 힘은 막강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만큼이나 지구 반대쪽 날씨도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날씨현상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기후현상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나아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게 한다.

초 록 퍼 즐

© 출제 안민자 회원기자 amj138612@naver.com

	①			⑥		⑦
②⑧				③		
		④				
	⑨					
				⑤		

가로

- 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산
- ② 까만중머리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가지과의 한해살이풀, 요즘 해독작용과 항암작용으로 주목받고 있음.
- ③ 언 땅을 뚫고 잎이 먼저 나오는 얼음새꽃, 복과 장수를 가져다준다고 함.
- ④ 법률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을 일컬으며 장수하늘소, 황새, 진돗개, 수달 등이 속한다.
- ⑤ 잎을 가시로 변화시켜 건조에 더욱 강하게 진화한 식물로 신선의 손바닥처럼 생겼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

세로

- ⑥ 누구나가 산림에 대한 공평한 산림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
- ⑦ 여러 가지 특수성분과 독특한 약리효과를 지니고 있어 건강애호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
- ⑧ 썩의 암컷을 이르는 말
- ⑨ 우리나라 남부의 바위나 나무에 붙어사는 초본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의 보호종

정답 보내실 곳 | FORESTFL@chol.com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손수건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참여자 : 임정현 회원님 고맙습니다.



⑥의 첫 글자와 ③의 마지막 글자?

지난 39호 정답 : 나물

일곱 번째 이야기

들꽃학교 노교사, 교육 희망을 보다 겨울을 이겨낸 기쁨



3월이다. 머지않아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필 것이다. 옛날 앵두꽃과 화사한 복사꽃, 청순한 목련꽃도 병글어질 것이다. 봄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려고 나무와 풀들은 얼마나 힘겨울까. 3월에 온몸이 나른한 것은 초목에게 기운을 빼앗겨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큼한 냉이와 달래 같은 봄나물을 먹는 것이 아닐까. 겨울을 이기는 힘을 지닌 풀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이라. 벌써 날이 풀리고 냉이가 파릇해졌다. 추위에 많이 움츠른 채 외투도 입지 않고 무서운 겨울을 견뎌 온 냉이가 참 대견스럽다.

늦가을, 어느 때처럼 갑자기 매서운 추위가 덮쳐 왔다. 나는 들꽃 위에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잎을 두툼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지나가던 학교장이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다.

“겨울에 풀이 얼마나 살까요?” “교재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다년생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그렇구나. 풀은 일 년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열대 아프리카나 아마존, 또는 동남아시아에선 풀이 환경만 좋으면 사시사철 줄기에 늘 푸른 잎을 달고 꽃을 피우지 않는가. 풀은 빙하기 때부터 겨울이 절박한 문제였다. 한마디로 따뜻한 터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작년에 학교 아래텃밭에 심어 수확했던 토마토, 가지, 고추, 오이 줄기를 걷어 내고,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캔 뒤 서둘러 아이들과 함께 두엄을 퍼다 주고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 작년에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어렵게 구한 우리밀 씨앗이 반 정도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수확한 한 말 가까운 씨앗을 넉넉하게 뿌리기로 하였다. 그래도 직접 거둔 씨를 뿌리는 것이 심혈적으로 좋을 듯 싶어서였다. 하지만 종자가 시원찮아 얼마나 싹이 날 것인지 걱정스러웠다. 밀 씨앗을 뿌린 뒤에 물을 흠뻑 주었다. 그리고 싹이 돋을 때까지 따뜻해지라고 낙엽을 덮어 주었

다. 그런데 까치들이 날아와 낙엽을 헤치고 밀을 쪼아 먹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서너 마리가 날아와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향을 질러 쫓으면서 웃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을 떼로 데리고 와서 일곱 두령을 닥치는 대로 파헤치고 있었다. 안되겠다 싶어 빈 시간마다 나와 돌맹이로 까치를 쫓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추위가 닥쳐왔다. 아이들과 함께 끝없이 떨어지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잎을 양동이로 담아다 밀 씨앗을 뿌린 밭에 덮어 주었다. 문득 제주도에서 까치의 피해가 극심해서 까치 사냥을 허용한다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선생님, 까치를 잡아요.” “어떻게?” “새 잡는 그물 같은 걸로요.” “야, 이놈들아. 까치가 쪼아 먹을 것을 미리 알고 밀을 많이 뿌렸다. 까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사람들과 까치는 함께 사는 거다. 이 땅의 주인은 사람만이 아니야.”

김종원 선생이 곁에서 들으면서 비죽이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낙엽 덮는 일이 재미있다는 듯 은행나무잎과 단풍나무잎을 밭에 한없이 뿌렸다. “밀이 과연 날까?” 알 수 없었다. 때도 늦었지만 까치가 떼로 몰려와 잔치를 벌였으니...

그렇게 조바심을 치던 어느 날 나뭇가지로 낙엽을 파헤치고 살펴보니 노릇하고 푸릇한 밀이 비죽이 돋아나고 있었다. 기뻐다. 새 생명은 사람이건 강아지건 들꽃이건 모두 아름다운 법이다. 우리밀을 다시 살려서 우리 학교 텃밭뿐만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 오늘월에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밭밭을 보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겨울을 견디는 밀로 만든 밀가루로 마음 놓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고 싶다. 농약도 방부제 걱정도 안 하면서 말이다. 어쨌든, 풀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엄만 넉넉히 주면 약이 되는 모양이다. ☀

글. 이원구

30여 년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온 한 교사가 텃밭을 가꾸면서 깨친 삶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숲과사람들’을 통해 나누고자 34호부터 연재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원작 도서 [들꽃학교 노교사, 교육 희망을 보다/글.이원구/우리교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원구선생님의 교육에세이는 이번호로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생명의숲 회원님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이원구 회원님, 고맙습니다.

숲 속의 자그마한 야생화, 애기별꽃을 닮은 이고운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 이고운 회원(좌)과 정희 회원기자(우)

이번 호 회원인터뷰 준비를 위해 사무처에 들렀는데 지난 생명의숲 회원의밤에서 축사를 낭독한 20대 회원이 화제였다. 알고 보니 이번 호 회원인터뷰 대상인 이고운 회원님이었다. 우선은 실로 간만에 만나보는 20대 회원인데다가 도 대체 얼마나 멋있게 축사를 잘 했길래 모두의 관심을 받는 지 이고운 회원님이 몹시 궁금했다.

이고운 회원님, 자기소개 좀 부탁 드려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학생이고요, 조경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또...(웃음) 일산에 살고요, 토이 푸들 강아지 코코를 키우고 있어요.

생명의숲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동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생태 보전이라든가 생태복원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우선 환경 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첫 시작으로 생명의 숲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생태 보전과 생태복원학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

가 있었나요?

6살 때 인가 길거리에서 고양이의 로드킬 장면을 목격했어요. 당시 그 고양이는 차에 깔렸는지 납작해져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죽은 고양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무서워서 죽은 고양이를 엄마에게 데려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마치 만화영화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를 쫓다가 문에 부딪혀서 납작해졌다가 다시 펴고 부풀어 올라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듯 그렇게 다시 고양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뒤 고등학생 시절에 독서 멘토 활동을 하면서 최재천 교수의 책을 읽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로드킬의 심각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을 원래대로 보전하고 되돌리는 공부나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생명의숲 활동에 참여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사실 제가 생명의숲 회원 가입 무렵에 베체트병이 발병해서 건강회복에 집중하느라 학교도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명의숲 회원 가입만 했지 별다른 활동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환경활동이 한 가지 있는데 유한킴벌리에서 주최한 청소년 숲 캠프가 생각나요. 친구가 소개해서 캠프 참가를 신청했는데 친구는 가지 못하고 저만 가게 됐지요.(웃음) 그 때 밤에 곤충을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벌레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냥 '벌레'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징그러워하지만 저는 숲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제 친구처럼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조경학을 공부하는 새내기 대학생으로 새로운 생활과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요?

우선, 자연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조경학과에 진학했지만 다른 학교에 있는 환경생태공학부에 편입해서 자연생태와 좀 더 관련 있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자연생태에 대한 지식도 쌓아야 하고 자연생태를 알 수 있는 기술도 공부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모

르겠지만 나중에 생태복원학 분야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고운 회원님을 생명의숲 회원기자단에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 동안 생명의숲 회원으로만 있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기자활동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생명의숲 활동에 참여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시켜만 주신다면 생명의숲 회원 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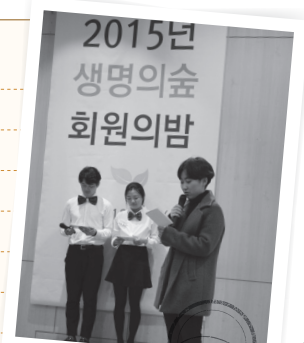
이고운 회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시종일관 유쾌하고 즐거웠다. 학교를 쉬면서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운 회원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명랑하고 밝은 웃음을 짓는 매력적인 아가씨였다. 마치 밤새 비바람과 천둥번개를 맞고도 이튿날 아침햇살에 그 자그마한 꽃잎을 싱그럽게 펼쳐 보이는 숲 속의 애기별꽃 같은... 이고운 회원님의 지난 생명의숲 회원의밤에서 낭독한 축사 내용의 일부분이다.

생명의숲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동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 결심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생명의 숲을 후원한 것이었습니다. 후원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

를 자퇴하고 건강을 회복하느라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제 꿈을 향해 다가가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사 랑스러운 동물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15.12.2 생명의숲 회원의밤에서. 이고운



이고운 회원님의 동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진솔하다. 왜냐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좋아하기 때문이다. 늘 그렇게 진솔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회원님의 꿈을 꼭 이루기를 바라본다. 🌻

Interviewer 정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회원소식

● 3월, 일년 중 새로운 시작이 가장 많은 달. 입학, 취업, 결혼, 승진... 회원님들의 모든 시작을 생명의숲이 응원합니다! ●

박홍철 회원

국립공원연구원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박홍철 박사님,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국립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이재현 회원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겸임 교수가 되셨어요. 우리나라 비영리 단체들의 해묵은 고민을 해결하는데에 발벗고 나선 이재현 회원님. 새로운 인재 양성에도 힘써주세요!

우명원 회원

서울화랑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승진하셨어요. 지난해 가을의 소식이지만,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학교숲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우명원 회원님, 더욱 학교숲운동 확산에 힘써 주실거라 믿어요.

아이와 함께 하는 생태교육 나들이, 길동생태공원을 소개합니다.

♣ 많은 인구의 유동과 도시개발, 소음과 각종 공해, 오늘날 도심에서 자연 생태적인 곳을 찾기 어렵게 된 이유들이라 할 수 있다. 인공적이고 기계적인 생활환경에 익숙한 요즘의 어린 세대들에게 반딧불이나, 습지나 곤충과 동물의 서식지는 책을 통한 지식 또는 이야기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비교적 자연생활을 많이 접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어른들이 지금의 어린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연생태는 극히 제한적이고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 생태공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 배경이다.

♣ 생태공원이란 공원녹지를 생태적으로 복원, 보전하여 이용자들이 식물, 동물, 곤충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관찰 학습장소를 말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어 국민들의 자연학습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데, 1999년에 길동생태공원이 서울시 강동구에 조성 되었을 때는 생태공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때였다.

♣ 길동생태공원은 각 자연생태의 특성을 살려 산림지구, 농촌&초지지구, 저수지지구, 습지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한쪽에는 반딧불자연서식지와 반딧불이사육장도 조성되어 있어 고맙게도 도심 속에서 반딧불이를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생태관찰, 생태문화, 생태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절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들을 수 있다. 매월의 확정된 세부 프로그램일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초에 방문했을 때만해도, 며칠 전 내려간 기온 탓에 습지와 못가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으나, 가지마다 봄을 맞으려는 움푹이 분주해 보였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소음을 먼 배경으로 머리 위에서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바쁘게 들려왔다. 봄여름가을의 모습이 기대되는 컴퓨터 보였다.

♣ 하루에 일정 인원의 방문만 허용하므로 인터넷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http://parks.seoul.go.kr>), 음식물반입이나 애완동물반을 하지 않는 것은 이곳 생태공원에 살고 있는 주인들에 대한 기본 예의이다.

♣ 생태공원 길 건너에는 길동생태문화센터가 있어 자연학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설 전시관도 있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접할 수 있다. 가까이에 허브천문공원과 일자산자연공원도 있다. 🌞



©길동생태공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둔촌동 558)

전화

02-472-2770

볼거리

길동생태문화센터
광장지구
초지지구
습지지구
산림지구
저수지지구

숲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대전충남생명의숲

안녕하세요! '교통의 중심, 과학의 도시'라는 말보다는 '숲의 도시'라고 불리고 싶은 대전. 이곳 대전 충남 지역의 숲을 지키고 가꾸며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 인사드립니다. '대전에 얼마나 숲이 많기에?'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분지형태인 대전은 숲이 대전 도심을 아늑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고, 그 도심 안에 대전의 3대 하천(대전천, 갑천, 유등천)이 흐르고 있는, 주위를 둘러봐도 숲이 보이는 도시입니다.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도 많고, 도심 한복판에 한밭수목원이라는 수목원도 있어 말 그대로 숲을 가까이 두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덕분에 이런 도심 속 숲을 활용해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핫한 간판 프로그램은 바로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3기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성북동산림욕장에서 10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했는데요, 올해는 대청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추동 공존의숲에서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전학년이 참여하여, 3월~11월까지 한달에 한번, 숲의 사계절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변화와 나무와 숲, 자연의 생태를 관찰하는 숲생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니 혹시 궁금하시다면 대전충남생명의숲 홈페이지(www.djforest.or.kr)를 찾아주세요.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의 운영은 숲해설가 소모임인 '숲사람(숲이 좋은 사람들)'에서 직접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숲사람'은 대전충남생명의숲 활동의 밑거름이 되고 지탱할 수 있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2005년에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대전충남생명의숲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고 함께 나누자는 뜻을 모아 시작되어, 300명도 채 되지 않던 회원을 800명이 넘는 회원으로 만들게 된, 회원확대의 밑거름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아! 한가지 더,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는 2011년에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았고, 2015년에는 우수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숲에서 함께 해서 즐겁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까지 받아 더 힘이 나는 프로그램,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를 앞으로 잘 이끌어, 만들어가면서 우리 지역의 숲을 지키고 가꾸고 나누어 가겠습니다. 대전, 충남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

글.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활동가

전국에 13개의 지역 생명의숲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는 '산림청 인증 숲해설가 전문과정'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충남지역 회원님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 www.djforest.or.kr ☎ 042-226-5355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1번길 48, 205호

시민 활동 모임 소개 - 회원기자단



2009년 5월, 회원이 직접 만드는 회원 신문으로 시작, 2016년 지금 보고 계신 40호까지 7년 동안 숲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낸

사람들, 바로 회원기자단입니다. 숲 · 환경 관련 이슈 취재, 회원이 소개하는 생명의숲 활동, 회원인터뷰를 통한 회원과 회원

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임 역시, 회원기자단입니다.

지금까지 회원기자단은 회원소식지에 이야기를 담아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숲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숲을 좋아하고, 숲과 사람에 대한 넘치는 관심을 나누고 싶은 분들, 회원기자단에서 우리, 만나요.** 🌱

문의 : 02-499-6198

숲에는 생명이 싹트고,
사람들 마음엔 초록이 자랍니다.

한 그루 나무가 되어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 후원회원 명단은 2016년1월~2월24일까지의 입금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의숲팀(02-499-6198)으로 연락주세요!(^^)

※ 계좌오류로 인해 회비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일의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

후원회원 명단

유기산 (주)서림과림 (김미경)	가람가쿠학교 (김성수)	강경호	강광석	강교영	강금비	강덕원	강동원	강동환	강미진	강민경	강민철
강서병	강선호	강신희	강성호	강신도	강양호	강영현	강영남	강영식	강영애	강영진	강영희
강세진	강재신	강정민	강재신	강지혜	강진솔	강현철	강혜수	강홍실	강희정	강형철	강희하
고대하	고동석	고동욱	고병국	고수미	고영곤	고영삼	고유정	고은경	고은빛	고은정	고은희
공기대학교 (고현희)	공유택	곽노형	곽노준	곽상준	곽세현	곽영미	곽영진	곽은숙	곽정현	곽현숙	곽현선
권기훈	권보조	권동현	권보조	권보조	권보조	권보조	권보조	권보조	권보조	권보조	권보조
기경민	길준호	길홍덕	길가혜	길경남	길경범	길경수	길경숙	길경아	길경옥	길경옥	길경옥
김경희	김관식	김광수	김광수	김관술	김귀희	김규환	김금애	김금희	김기림	김기원	김기현
김남희	김다인	김대희	김대희	김덕년	김덕진	김도현	김동범	김동영	김동철	김민희	김민희
김명순	김명옥	김명은	김명진	김명진	김명환	김명희	김문기	김미경	김미선	김미수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미형	김민경	김민선	김민선	김민정	김범석	김범주	김범섭	김범희	김보현
김상범	김상우	김상우	김상홍	김상현	김상현	김상현	김생환	김서준	김석구	김석근	김석진
김신화	김신후	김신희	김신희	김신희	김성기	김성대	김성대	김성남	김성남	김성수	김성수
김소희	김솔이	김수미	김수열	김수정	김수진	김수환	김숙희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자
김성일	김신자	김신호	김양숙	김양숙	김여선	김영수	김영실	김영중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성일	김영중	김영진	김영현	김영현	김영현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용석	김용석	김용순	김용진	김용표	김우찬	김우철	김옥자	김원주	김원태	김유리	김유미
김원현	김원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교	김은기	김은진	김은수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인	김인애	김인호	김일선	김자영	김재준	김재현	김재홍	김정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수
김정아	김정아	김정은	김정현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지미	김지현	김지현	김진경	김진배	김진석	김진성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찬성	김찬원	김찬원	김찬원	김찬배	김찬욱	김찬형	김찬현	김찬현	김찬화	김철민	김철민
김준자	김준호	김지환	김택현	김태영	김태환	김태원	김태유	김태중	김태중	김태중	김태중
김하늘	김하용	김하동	김한석	김한수	김해영	김향선	김현숙	김혁	김혜원	김혜원	김혜원
김현탁	김형미	김형섭	김형수	김형수	김혜수	김혜숙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효선	김효신	김훈	김하	김하	김하	김하	김하	김하	김하	김하	김하
남은정	남택호	남화여	노경애	노국환	노병권	노상은	노순미	노순자	노승희	노영숙	노은주
농촌생활문화센터 (이종화)	도순아	도재영	류경미	류경숙	류광수	류기형	류부일	류양선	류양선	류양선	류양선
명진숙	문경진	문분미	문수진	문영남	문영선	문영선	문윤희	문인영	문일선	문진우	문진우
민규리	민희옥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민진호
박대훈	박동식	박동환	박두선	박래필	박말선	박명선	박문선	박미경	박미경	박미선	박미애
박복초	박삼봉	박삼규	박삼길	박삼남	박삼선	박삼수	박삼수	박삼수	박삼수	박삼수	박삼수
박성동	박성현	박세영	박세정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영균	박영미	박영부	박영석	박영수	박영숙	박영자	박영정	박영진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
박유미	박유준	박유준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준석	박준영	박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박형진
배말금	배미경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배소윤
백인식	백정희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백종민
서경미	서경진	서덕순	서동희	서문호	서미경	서민정	서봉근	서봉식	서상선		

윤영미	윤영주	윤자영	윤자희	윤장노	윤정순	윤정현	윤준민	윤지동	윤진	윤진	윤차중	윤춘경	윤태우	윤태윤	윤한별	윤현숙
윤혜영	윤혜정	윤희연	윤희학	이갑순	이강영	이강민	이강세	이강현	이건상	이건상	이경란	이경란	이경미	이경민	이경수	이경선
이경아	이경열	이경주	이경학	이경희	이경희	이덕용	이도한	이도희	이광문	이광문	이근아	이금용	이기승	이기승	이기승	이기현
이기혜	이나현	이낙원	이남영	이대건	이덕근	이덕용	이도한	이도희	이동열	이동열	이동준	이동철	이동춘	이동환	이두나	이득영
이라	이란	이리나	이만옥	이만준	이명덕	이명동	이명섭	이명진	이명진	이명채	이명희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란	이미선
이상우	이상은	이상인	이상인	이상진	이상현	이상훈	이석재	이석현	이복만	이복재	이상남	이상도	이상문	이상미	이상민	이상선
이성희	이세영	이세현	이소리	이소민	이소연	이수경	이수연	이수연	이수원	이수원	이수정	이수현	이순애	이순영	이순환	이승미
이승연	이승우	이승은	이승준	이승준	이승준	이승호	이승희	이아라	이양구	이연옥	이연원	이연희	이영	이영미	이영애	이영주
이영희	이예숙	이용구	이용권	이용남	이용성	이용직	이우상	이우상	이원덕	이원미	이원숙	이유정	이윤승	이윤정	이윤주	이윤리
이은기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하	이은하	이영렬	이인선	이인숙	이인숙	이일남	이일덕	이재봉	이재석
이재성	이재성	이재식	이재영	이재원	이재원	이재원	이재준	이재진	이재진	이정민	이정숙	이정순	이정순	이정우	이정우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갑	이종길	이종길	이종섭	이종섭	이종희	이종희	이주식	이주식	이주현	이주희	이준미	이준우	이지연	이지열
이지영	이지우	이지원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진구	이진구	이진명	이진석	이진석	이진숙	이진숙	이진연	이창복	이창준	이철우
이춘선	이춘희	이춘희	이춘선	이태석	이태재	이학숙	이한구	이한구	이한선	이행중	이향란	이향미	이향배	이현경	이현정	이현숙
이현아	이현일	이현호	이형준	이혜민	이혜성	이혜성	이혜영	이혜영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호일	이호일	이호찬	이호선
이화진	이환규	이효수	이희성	이희수	이희준	이희준	인은수	인창혁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임경철	임근자	임대성	임동준	임명철
임미정	임복규	임복희	임상섭	임상준	임선희	임성은	임성주	임성진	임성후	임수경	임수현	임영선	임옥남	임원택	임원열	임은미
임재우	임재훈	임정현	임종필	임종수	임종수	임종필	임종필	임지연	임현아	임현아	임현철	임형목	임형진	임혜주	장광은	장대익
장령	장만	장미아	장석일	장석재	장승남	장승남	장영건	장영수	장영숙	장영숙	장예령	장우혁	장원영	장은영	장인수	장일식
장정옥	장정희	장진	장진관	장정훈	장태수	장태수	장학영	장학원	전국완	전미경	전필수	전성영	전숙례	전순남	전순복	전순복
전영배	전영환	전영훈	전용관	전용훈	전유경	전은주	전지찬	전지찬	전재숙	전지현	전지희	전필수	전현주	전형남	전경숙	전경숙
정경희	정경희	정계민	정고은	정구갑	정규석	정규연	정달호	정란	정란	정란	정래영	정만금	정명숙	정명희	정미나	정미라
정미선	정미선	정미아	정미애	정미영	정미자	정민채	정병준	정성희	정성문	정성재	정성남	정수옥	정순화	정순희	정순준	정애숙
정재자	정양희	정영진	정영진	정영진	정영일	정영일	정예린	정옥자	정용록	정용숙	정유민	정유진	정은연	정은희	정재규	정재영
정재희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택진
정하준	정혁	정현경	정현진	정혜영	정혜주	정희식	정효진	정훈형	정희수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조강희	조경숙	조경호	조규남
조규식	조근식	조만희	조명자	조명현	조복남	조사인	조석호	조성숙	조성희	조성희	조순희	조연순	조연희	조연래	조영미	조영철
조영희	조영희	조유진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유환
조해영	조현자	조호석	조호연	주경성	주만석	주복희	주소영	주원혜	주은미	주은옥	주은원	주진경	주창호	주형선	주혜린	지규현
지나지선	지옥영	지원희	지인구	지후자	진문석	진상현	진용주	진우석	진윤주	진은순	진하영	차승연	차유정	차유정	차은주	차은지
최준희	최지철	최수정	최수진	채 일	채현순	채희욱	채희정	최병연	최상규	최상규	최성수	최성애	최세경	최소영	최소현	최경아
최근홍	최기수	최동준	최명은	최문선	최미숙	최미자	최미향	최병연	최상규	최상규	최성수	최성애	최세경	최소영	최소현	최경아
최숙영	최순남	최순실(김정아)	최승갑	최여은	최영미	최영숙	최은호	최재민	최재민	최재민	최재민	최정식	최준원	최지원	최진숙	최진숙
최진현	최원선	최운정	최운정	최운정	최은비	최은비	최은비	최현미	최현미	최현미	최현미	최현미	최현미	최현미	최현미	최현미
최찬희	최찬순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최태분
태유리	편운국	하나연	하 람	하상고	하세리나	하수미	하수훈	하수현	하수현	하수현	하수현	하수현	하수현	하수현	하수현	하수현
한경석	한경석	한국환	경교육원	구소	한동희	한상민	한상욱	한상현	한희선	한희선	한희선	한희선	한희선	한희선	한희선	한희선
한재현	한재호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한정민
허안숙	허윤규	허 은	허진경	허학영	현경호	현승연	현유진	현정호	현정호	현정호	현정호	현정호	현정호	현정호	현정호	현정호
홍설희	홍성권	홍성숙	홍소현	홍수자	홍윤정	홍인숙	홍정순	홍정숙	홍정숙	홍정숙	홍정숙	홍정숙	홍정숙	홍정숙	홍정숙	홍정숙
황보규	황선영	황성빈	황세희	황수현	황순덕	황순일	황순진	황원희	황정현	황정현	황정현	황정현	황정현	황정현	황정현	황정현

연남부회원

강대찬	강석철	곽정수	구금순	김광호	김근용	김동섭	김무창	김부금	김선아	김성열	김성택	김승남	김영조	김영출	김윤기	김인석
김주현	김지한	김한담	김형규	김혜정	김홍연	김후란	남윤택	문 인	문현채	민병준	박경숙	박근우	박문한	박문한	박백범	박상연
박순옥	박용희	박원철	박윤정	박재달	박주현	박현숙	박현태	박혜영	박혜영	박호진	배용래	백승우	백주열	백철수	서경석	서백연
서승진	서홍만	성주한	신경희	신만용	신서희	신은희	안소례	안원철	엄영숙	예건희	오경주	유보명	유근호	유병배	유종아	유종호
유태환	윤상구	유태병	이경숙	이경원	이경재	이든구	이동섭	이만재	이미정	이미정	이봉교	이선주	이상숙	이상우	이상일	이소형
이숙희	이순이	이순주	이승호	이영재	이용상	이용섭	이임영	이재룡	이정화	이종각	이주희	이창국	이철고	이종미	이현호	이희삼
임원희	임하수	임혜미	임홍순	장경환	장미령	장성환	장진호	장평식	장현수	전해민	정성빈	정순선	정완봉	정현주	조동길	조만환
조영숙	조용화	주용석	진선필	천문식	최돈하	최성원	최승연	최영택	최재영	최창진	표병혁	한경수	한국묘협회	홍보영	황선애	황선애

기업회원

(주)굿필코리아 (주)비코트립 (주)신흥이앤지 (주)에코퍼 (주)월송나무병원(김철웅) (주)웰빙아이앤씨 LG상록재단 머스틴(박보강)
삼정KPMG 알앤비코(RNBco) 우신건설(주) 일송환경복원(주) (주)대명화학 (주)동심원조경 (주)수프로 주식회사지엔푸드
(주)유한양행 한솔섬유주식회사

평생회원

곽두일 권상진 김경일 김성훈 김인식 김정균 김종곤 김태진 노만경 노영희 문국현 박미호 박예식 박창준 박필선 배상원
서현종(진원스님) 손승우 신문수 우종민 윤영각 이동진 이득우 이명주 이선민 이원화 이재현 임원준 전영우 전정일
조연환 조용성 조효봉 한경식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 2016년 1월~2월 회비 증액 해주시 회원님 - 김탁현 권연조 이은숙 홍대원 회원님 고맙습니다.

2016년 상반기 생명의숲 시민참여 프로그램

2016년에도 생명의숲을 통해 일상에서 숲을 만나세요!

03
March

숲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일교류 세미나

일시_ 3/18(금) 13:30
장소_ 프레스센터 20층
내용_ 숲의 정원에 대한 가능성

생명의숲
나무심기

일시_ 3월말 또는 4월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장소_ 노을공원(마포구 상암동)
내용_ 나무심기

8기
세계평화의숲
기초양성과정

일시_ 3/25~6/11(금/토)
장소_ 세계평화의숲(인천 영종도)
대상_ 영종도 주민
내용_ 전문자원활동가 양성교육



04
April

서울시와 함께 하는
나무심기

일시_ 4/2(토) 10시
장소_ 서울시 길동 인근
내용_ 봄철 나무심기

지역기반 산림관리
정책토론회

일시_ 4/19(화) 14:00
장소_ 통계교육원(대전)
내용_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숲관리 방안 논의

남산 후암골
마을숲가꾸기

일시_ 4/7~6/2 매주(목)
장소_ 후암동 주민센터 인근
대상_ 후암동 인근주민 및 회원
내용_ 동네 가꾸기 활동(가드닝)

숲문화아카데미

일시_ 4/20(수) 19시
장소_ 숲센터 4층 부피예룸
내용_ 그린인테리어
강사_ 유명화

기업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일시_ 4/9(토)
장소_ 한강변 독섬 인근
대상_ 기업회원, 파트너기업, 임직원 가족 200명
내용_ 나무심기

둘레길
힐링캠페인

일시_ 4/23(토)
장소_ 남산 둘레길
내용_ 해설 + 둘레길걷기

세계평화의숲
나무심기

일시_ 4/9(토)
장소_ 세계평화의숲
대상_ 영종도주민 및 회원
내용_ 나무심기 자원활동

세계평화의숲
봄축제

일시_ 4/23(토)
장소_ 세계평화의숲 내
대상_ 영종도 주민 및 회원
내용_ 사생대회, 백일장, 체험부스

궁궐 숲탐방
_창경궁

일시_ 4/16(토) 10시
내용_ 여인의 궁궐, 창경궁

아름다운숲
숲기행

일시_ 4/30~5/1(토~일)
장소_ 아름다운숲 수상지
내용_ 숲기행

05
May

아름다운숲
숲기행

일시_ 5/1(일)
장소_ 아름다운숲 수상지
내용_ 숲기행

숲가꾸기
자원활동

일시_ 5/21(토)
장소_ 남산
내용_ 생태계교란식물제거

숲문화아카데미

일시_ 5/18(수) 19시
장소_ 숲센터 4층 부피예룸
내용_ 생태드로잉
강사_ 황경택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일시_ 5월 중
내용_ 아름다운숲 공모전

06
June

궁궐 숲탐방
_창덕궁

일시_ 6/11(토) 10시
내용_ 조선의 마지막 궁궐, 창덕궁

귀농귀촌
숲아카데미

일시_ 6/21~7/12(주2회)
장소_ 미정
내용_ 귀농귀촌 아카데미

숲문화아카데미

일시_ 6/15(수) 19시
장소_ 숲센터 4층 부피예룸
내용_ 숲속도서관1_저자 만남
강사_ 김산하(비숲)

회원 소풍 DAY
_숲 빼기

일시_ 6월 중(토)
장소_ 남산
내용_ 숲가꾸기 자원활동

숲가꾸기
자원활동

일시_ 6/18(토)
장소_ 남산
내용_ 생태계교란식물제거



07
July

숲문화아카데미
5강

일시_ 7/20(수) 19시
장소_ 숲센터 4층 부피예룸
내용_ 숲속도서관2_저자 만남
강사_ 신준환(다시,나무를보다)

남산 숲
여름학교

일시_ 7월 마지막주 평일
장소_ 남산
대상_ 초등학교 저학년
내용_ 어린이 숲가꾸기 활동

회원기자학교
3기

일시_ 7~8월 중
장소_ 숲센터 4층 부피예룸
내용_ 회원기자 양성교육

본 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의숲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시기에 따라 공지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생명의숲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숲센터 5층 02-735-3232

홈페이지 www.forest.or.kr 메일 forestfl@chol.com 블로그 forestforlife.tistory.com 페이스북 [/forestfl](https://www.facebook.com/forestfl)

발행처 생명의숲국민운동회 회원활동위원회
자문 유명인 생명의숲 사무처장

생명의숲 회원기자단 정희(단장) 류춘희 백선길 안민자 우상권 이경희 이명덕 이정명 임홍순